

10만명 붕괴 1년만에 2700명 줄어…북·남구 편입 3개案 마련

광주 동구 인구 감소 추이와 구간 경계조정 방안

광주시가 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자치구간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1번지’ 광주 동구의 인구 감소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동구청 조직도 점차 축소돼 공공서비스의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줄어든 광주 동구는 인구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동구는 오는 2018년까지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 인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9만9879명으로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달 말 기준 9만7137명이었다. 1년 만에 2749명이 줄었다. 한 달 평균 250여명의 동구를 떠난 셈이다.

동구는 1980년 북구청 개칭 이후 시행된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 정책,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이전 등의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후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집단 이주가 늘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는 재개발이 하나씩 마무리되는 2019년 이후에는 7190가구 1만8910명의 인구가 북구에 10만명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784가구 2000여명의 입주가 예상된 광주 동구 월남2구역 입주가 시작됐지만, 다음 달 인구증가는 57명에 그쳤다. 이후 7~8월에도 인구감소세가 250여명 선에서 50~80여명으로 줄어 들었 을 뿐, 감소세는 여전했다.

대단위 재개발단지 입주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재개발 단지 입주도 감소세 못돌려

조직 축소·부청장 직급 하향 눈앞

市·정치권 총선 끝나자 논의 멈춰

되돌리지는 못하는 형국으로,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하지만 동구는 자구노력에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같은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내년 7월에는 부구청장의 직급도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서기관(4급)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동구 인구 회복을 위해 갖가지 방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수만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 외에는 단독 선거구 기준인 인구 13만명선을 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는 ▲북구 두암1·2·3동, 문화동·석곡동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는 1안과 ▲북구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일부를 편입하는 2안 ▲동남을 선거구에 포함된 남구 방림1·2동, 백운1·2동, 사직동, 양림동을 동구에 편입하는 3안 등 5만2000명~6만명의 인구가 포함된 북구와 남구의 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추진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끝나고 5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구는 애만 태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찾은 안철수 “소녀상 철거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사죄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일본 정부가) 책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회복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 “지금 박근혜정부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녀상의 문제도 포함해 계속 합의의 확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녀상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소녀상은 상징이다. 그 상징에 대해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방문에는 같은 당 김삼화·신용현·권은희·최도자 의원이 동행했으며 나눔의 집에서는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의원 185명, 20대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결성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모임이 8일 결성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제정된 지 30여년 넘은 1987년 헌법 체제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국민의 정치 불신 등 여러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국민 사이에서 개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향후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개헌 담론을 펼칠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의성에 대해 광범위

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한다. 권 의원, 백 의원, 김 의원은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당 별로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선 원유철·김재경·이군현·정우택·주호영·황영철 의원, 더민주에선 이석현·원혜영·김진표·안민석·진영·노웅래·이춘석·박완주·김두관 의원,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박주선·주승용·장병완·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19대 국회 때는 150여명이 개헌모임을 했다. 이 가운데 20대 국회에도 진입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참여 의원들을 모집,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을 넘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팎 거센 반발에…추미애 더민주 대표 전두환 예방 취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는 12일 예방하려 했다가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자 8일 취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예방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추 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과 상의를 하기 전에

보도가 먼저 됐고, 의논을 한 결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많아 수용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측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서 추 대표는 “국민통합과 화해를 위한 예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 최고위원들은 전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함께 얘기를 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관 최고위원도 “대표도 얘기하겠지만, 그 사

람을 용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우하고 이런 대상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신장현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김춘진 최고위원이 “국민통합을 위한 추 대표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전화로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 국민통합을 원하는 추 대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도 이제 광주에 찾아가 고개 숙여 사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직한 가격에 대물림 하겠습니까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태+애호박전	4k	96,000	
장례용품비	죽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리고추멸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도)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도)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굴떡/절편	6k(3도)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씻기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생삼겹(국내)씻기	5k	190,000				
	주류·음료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0.6오동관	1개	200,000	저축물및음식물처리비용	2회	100,000	향/원장(세트)	1개	5,000
수의(화장)		1벌	200,000	수세복	1벌	30,000	넛배	1회	150,000	
초령비		1회	100,000	액자리본(고급)	1개	5,000	임관용품	세트	150,000	
안치실		1회	100,000	향위패	1개	20,000	양초(대)	1개	10,000	
염습비	1회	300,000	발인세트	세트	80,000	여성복	1벌	18,000		
염실일대료	상조	250,000	부위록	1권	15,000	넥타이	1개	3,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다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